지하세계저승지하왕국의 지배자인 하데스와 그 부인인 페르세포네의 사이에서 새로운 여신이 탄생했다. 부활의 여신인 루칼리스였다.새로운 신의 탄생에 올림포스는 11일에 걸친 축제를 벌였고, 위대한 열두 신이 이 새로운 여신의 앞날을 축복했다.카오스 이례 한 번도 웃음을 보인 적이 없다던 하데스조차 미풍 같은 웃음을 보였노라고 헤르메스는 떠들어대었다.그것이 날조가 아님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창백한 죽음과 전운만이 감돌던 지하세계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속출했다.곳곳에 드리워진 음울한 회색 안개와 매캐한 유황 냄새는 여전했으나 그 무엇도 깰 수 없는 평화로움이 그곳에 있었다.검은 날개 펄럭이는 죽음의 전령들과 회반죽 빛 영혼까지 미소를 띠우고, 저 깊숙한 지하 문 앞의 케르베로스마저도 느슨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 속에서 홀로 빙설처럼 냉정한 것은 오로지 한 여신뿐이었다.페르세포네모두가 웃고, 떠들고, 환호하는 가운데 석상처럼 굳어 있던 지하세계의 여왕은 단 한 번도 제 딸을 돌아보지 않았다.루칼리스는 아비 쪽을 더 빼닮은 여신이었다. 짙푸른 머리칼, 창백한 피부, 깊은 눈매, 이목구비, 얼굴 윤곽까지. 누가 보기에도 하데스의 딸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페르세포네는 저를 납치해 결혼을 한 하데스를 증오했고, 그보다 더 끔찍스러워 한 것은 그를 쏙 빼닮아 낳은 루칼리스였다.출산을 하자마자 하데스를 판 박은 모양새에 갓 태어난 루칼리스를 스틱스 강에 집어던지려 했을 정도이다. 아마도 필사적으로 제지한 헤르메스가 아니었다면 실제로 그러했으리라.신들의 어떠한 축복도, 미사여구도 페르세포네의 굳은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다.루칼리스가 올림포스에 올라가 헤라의 젖을 먹고 오는 동안에도 페르세포네는 아이의 머리털 하나 보지 않으려 들었다.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 걷고, 말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도 냉대는 계속되었다.나중엔 루칼리스의 얼굴만 봐도 치를 떠는 통에 지하왕국에서는 아예 루칼리스를 페르세포네와 격리시켜 놓는 것이 불문율이 됐을 정도이다.그렇게 부활의 여신 루칼리스는 지하세계 모두의 관심과 페르세포네의 냉대 속에서 쑥쑥 자라났다.신들의 성장 속도는 인간의 것과는 비교가 불가능 했고, 어린 여신은 금세 자라나 걷고 말하고 뛰었다.성장하면 할수록 부친을 빼닮아가는 여신의 모습을 페르세포네는 끔찍해했고 하데스는 끔찍하게 사랑했다.여기서 루칼리스가 누굴 따랐을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는다.실제로도, 루칼리스는 하데스를 많이 따랐다. 태어날 때부터 적의를 내비치던 어미에게 모정을 바라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는 걸 어린 여신은 쉽게 이해했으며 수긍했다.결코 얻지 못할 것에 매달려 전전긍긍 할 바에야 제 말이라면 죽고 못 사는 아비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편이 더 나았다.지하세계는 생명이 없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게 갖춰진 곳이었다.셀 수 없는 수많은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굴러다니고, 한때나마 인간세계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자들의 온갖 무용담들이 넘쳐나며 기기묘묘한 지옥의 형별들이 판을 치는 곳.황금옥좌에 앉은 아비의 무릎을 흔들며 칭얼대면 그 모든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루칼리스의 손아귀로 굴러들어왔다.그랬기에 루칼리스는 풍족한 제 생활에 만족하며 큰 불만 없이 살았다. 어머니의 애정과, 살아 있는 자의 온기만 뺀다면 드넓은 지하세계에서 루칼리스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없었다.사실 그 두 가지만 뺀다면 거의 모든 것이 루칼리스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미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가엾은 여신의 모습은 모든 신들의 귀여움을 받게 하기엔 충분했기 때문이다.물론 음습한 지하세계는 아이가 자라나기엔 썩 훌륭한 환경이 아니었고, 이따금 놀러 오는 헤르메스의 바깥세상 이야기는 루칼리스의 배알을 몇 번씩 꼬이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하세계의 모든 부와 권력을 박차고 나갈 만큼 좋은 것은 아니었다.지상의 다른 어린 여신들이 꽃을 따며 즐거워 할 때에 루칼리스는 해골에서 갈비뼈를 따며 놀았고, 그네들이 애완견과 뛰놀 때엔 케르베로스의 등에 타 지하세계를 누볐으며, 지상에서 전쟁이 길어져 어린 여신들이 몸을 떨 때엔 제 왕국에 새 입주민들이 늘었다며 환영회를 열었다.그렇게 루칼리스는 지하세계에서 나름 보람찬 유년을 보냈다.그런 유년생활은 그녀가 지하세계를 벗어날 때까지 죽 계속 되었다.지하세계부활의 여신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루칼리스는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속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다른 신들의 유년기와 비교해도 상당한 속도였다.태어난 지 3일 만에 걷고 말하는 게 가능할 정도였던 루칼리스의 성장은 대략 12세 정도의 외양이 되어서야 멈춰 섰다.사실 본인이 원한다면야 성인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었지만 루칼리스는 구태여 변신을 시도하지 않았다.어차피 몸의 변화라고 해봐야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하데스가 그런 루칼리스의 모습을 크게 좋아했기 때문이다.본인 역시 자신의 모습에 퍽 만족했기 때문에 루칼리스는 그대로 소녀 같은 외양을 고수했다.그런 연유로, 지하세계에서는 루칼리스의 탄생 이후 자그마한 소녀가 짙은 머리채를 휘날리며 뛰어다니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루칼리스는 신들 중에서도 무척 폐쇄적인 부모와는 달리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신이였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을 못 견뎌 했다.오죽하면 올림포스에 헤르메스가 있다면 지하세계에는 루칼리스가 있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물론 그러한 루칼리스의 활발함이 비단 그 성정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하데스는 루칼리스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것을 겉으로 크게 드러낼 만큼 자상한 아버지가 못 되었고, 페르세포네 또한 한창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미소년 아도니스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때라 루칼리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온갖 광물과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여 올림포스보다도 휘황찬란한 지하세계의 궁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었고, 그러한 곳에서 저런 부모를 두고 외로움을 겪지 않기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그래서 루칼리스는 날이 갈수록 더욱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되었다.사계절이 번갈아 오가며 변화를 계속하는 지상과는 달리 지하세계의 풍경이란 거의 거기서 거기이다.어제 본 풍경이 오늘과 같고, 오늘 본 풍경이 내일과 같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던 결코 변함없을 풍경이었다.바닥에서부터 기둥, 대들보까지 모두 황금으로 지어진 휘황찬란한 지하궁전의 복도를 지나며 루칼리스는 기둥 너머의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기실 풍경은 어제 보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밤을 잡아다 가둔 듯 까맣게 죽어 버린 풍경 속에서 간간이 떠도는 불빛과 죽음의 사신들만이 불규칙한 궤적을 그린다.저 멀리에서 타오르는 지옥불과 함께 희미한 비명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때때로 유황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와 코를 간질이기도 했다.그 광경을 잠잠히 바라보던 루칼리스의 얼굴 위에는 곧 지겹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처음 들어온 인간들은 보자마자 겁을 집어먹는 경우가 대다수라지만, 워낙 날 때부터 봐온 풍경이라 그런지 별 감흥이 없었다.얼마 안 가 구경하는 데에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 루칼리스는 바깥의 풍경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는 다시 부지런히 발을 놀렸다.지상만큼이나 방대한 지하세계의 규모는 결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어린 여신이 쉬이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작지 않다.그러나 날 적부터 지하세계 곳곳을 휘젓고 다녔던 루칼리스는 익숙한 걸음으로 스틱스 강기슭으로 나아가 지하세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그렇게 돌아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루칼리스는 첫 인사를 받았다.“루칼리스 님, 안녕하십니까.”끼익끼익.희미하게 노 젓는 소리가 난다 했더니, 우람한 상체 근육을 다 드러낸 뱃사공 카론이 저 멀리서 인사말을 건넨다.백골이 둥둥 떠다니는 검은 강물은 연신 넘실거리며 작은 배를 한입에 삼킬 것처럼 굴었지만 정작 턱수염이 덥수룩한 카론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다.강기슭에 난 키 큰 갈대들을 헤치며 걸음을 옮기던 루칼리스는, 물살에 밀려났는지 잘그락 거리며 발에 감기는 해골 한 구를 발로 뻥 걷어차며 카론의 인사를 받아 주었다.“안녕. 카론. 아침부터 바쁘네.”“죽음은 때를 가리지 않는 법이니까요.”안부 인사 중 죽음을 가볍게 언급하는 그들의 대화법은 지상세계의 사람들이 봤다면 꽤나 기묘하게 여겼을 것이다.하지만 저승세계란 삶보다 죽음이 가까운 곳이고, 이곳의 안부 인사란 으레 이런 식이었다.모든 신들이 그러했지만 루칼리스는 특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죽음이란 오히려 그녀에게 있어 재미난 놀이공과도 같다. 익숙하고, 재미있는 것.지상의 빛이 꺼질 수록 지하세계의 인구는 늘어나고, 그녀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루칼리스는 카론의 배 위에 있는 망자들을 흘끗 바라보았다. 아직 제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지 성을 내는 이가 반, 넋 나간 이들이 반이다.보통 스틱스의 강물 초반에 들어선 망자들은 대부분 저런 반응을 보이곤 했다. 하도 비슷비슷한 반응들이라 나중엔 흥미보단 궁금증이 더했다.어차피 성을 내던 넋이 나가던, 백날 부정해보았자 죽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지상의 생물들이란 다 저리 미련한 건가?어쨌거나 새로운 주민들이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었다. 루칼리스는 특히 이번 망자들이 하나같이 풍채가 좋고 체구가 단단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음, 좋아. 오랜만에 인간 체스를 할 수 있겠어.지난 번 타나토스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망령은 살아생전 꽤 강한 무장이어서 루칼리스는 대다수의 인간 장기 말을 잃었다.어쩌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잘 싸우고 튼튼한 체스 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루칼리스의 두 눈이 기대에 차 반짝였다.“카론, 이번 망자들은 무장인가 보지? 하나같이 체격이 좋은 걸.”“지상 어딘가에서 또 전쟁이라도 벌어진 모양이죠. 본인들 말로는 꽤나 잘 나가는 무장이었다곤 합니다만….”“좋아, 입만 산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들은 없었지만.”그래도 갑옷과 검이 제법 그럴싸한 걸 보니 그냥 일개 졸병은 아니었을 것이다. 배 위의 망자들을 탐욕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던 루칼리스는 돌연 카론의 배 위로 폴짝 뛰어올랐다.그 반동으로 나룻배가 잠시 휘청거렸으나 곧 카론이 능숙하게 균형을 잡고 노를 젓자 순탄하게 나아가기 시작했다.한편, 카론의 배 위에서 제 처지를 한탄하며 체념하기 시작하던 망자들은 갑자기 배 위에 나타난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배 안의 망자들은 하나같이 체구가 좋은 성인 남성들이라 갑판 위에 보무도 당당하게 서 있는 루칼리스는 기껏해야 그들의 허리 높이 밖에 오지 않았다.그러나 갑자기 튀어나온 이 여자아이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배 안의 망자들을 슥 둘러보며 혼잣말을 시작했다.“체격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으음, 아침부터 죽어 온 걸 보니 알고 보면 허약한 거 아니야?”비록 혼잣말이라 하나, 망자들이 하나 둘 삶을 체념하며 입을 다문 배 위에 루칼리스의 목소리는 음습한 안개를 타고서 크게 확장되었다.특히 일반인보다 기감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장수들의 귀에 그 말은 천둥소리보다도 크게 꽂혔다.갑자기 배 위에 나타난 여자아이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하건만, 그 자그마한 꼬마 아이가 내뱉은 혼잣말은 그렇잖아도 심기가 불편했던 망자들의 분노를 사기엔 충분했다.굳은 표정으로 사방에 낀 짙은 안개에 시선을 주던 이들이 하나 둘 배 위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움직임에 따라 카론의 조각배는 요동치는 강물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분노가 짙게 깔린 무장들의 얼굴을 보고도 루칼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태연한 얼굴이었다.“이, 건방진 계집이…!”“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전장에서 이 몸이 못 베었던 적들은 없다!”처음엔 한 마디, 두 마디. 각자가 입 열어 한 마디씩 보태다 보니 배 위는 금세 벌집처럼 소란스러워졌다.가만히 노를 젓고 있던 카론이 때 아닌 소란에 고개를 들어 루칼리스를 바라보았다.미묘하게 변한 표정이 루칼리스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듯하다.-처리할까요?그러나 루칼리스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루칼리스는 현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망자들이 분노한 이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리라.마치 쓸 만한 장기 말을 고르듯 체격 좋은 망자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루칼리스는 별안간 돌변한 망자들의 태도에 어이없다는 듯 귀를 후볐다.뒤이어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은 망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들었다.“그럼 뭐 해. 죽었는데.”루칼리스는 진심으로 어이없어했다.지하세계에서 죽음이란 지상의 공기만큼이나 흔하디흔하다. 삶이나 지상에서의 영광 따윈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 못했다.그런 곳에서 저의 명예니 위세를 부르짖는 이들의 말을 들어주자니 그저 개소리처럼 들릴밖에.지상에선 백만 군대를 호령한 왕이었을지언정 이곳에선 제 식기 하나 들 힘조차 없는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다.왜 저승에 오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지상에서 저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리고자 필사적인 걸까?어쩌면 지상세계엔 ‘저승에서 부리는 진상 50선’ 같은 필수 교양서적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루칼리스는 진심으로 생각했다.루칼리스는 그들이 지상에서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던 제왕이든 개똥밭을 구르고 평생을 빌어먹고 살던 거지였든 별 생각이 없는데 말이다.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놈들은 대관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머리에 왕관 하나씩 쓰고 금 수저 물고 태어난 놈들만 저승에 몰리는지 신기할 지경이었다.그러한 루칼리스의 감상과는 별개로, 망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건방진 꼬마 계집의 말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제각기 살아생전 나름 이름을 날리던 장수들이다. 평생을 남들 위에 군림하고만 살았으니 이런 말 따위를 면전에서 들었을 리 있나.여기까지 참고 봐준 것만으로도 그들의 인내심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 했다.“이 건방진 꼬마 계집이!”저승의 뱃사공, 카론의 눈치를 보던 망자들은 그가 아무런 제지 없이 노만 젓자 잠시 주춤거리다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그때까지도 카론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채였다. 그 행동에 망자들은 용기를 얻었고, 망설임 없이 뽑혀져 나간 검은 루칼리스를 노리고 날아들었다.루칼리스는 저를 향해 쇄도하는 검을 심드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망자들은, 급한 성미 탓에 가장 먼저 검을 빼든 장수의 검이 건방진 꼬마 계집을 반 토막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그래도 무장으로서의 체면이 있지, 꼬마 계집 하나에 여럿이 칼을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모두가 제일 먼저 덤벼든 망자를 주시할 때였다.“허억…!!”지켜보던 눈들이 휘둥그레 커지며 숨 들이쉬는 소리가 뱃전을 울렸다.누군가 허공에서 잡아채기라도 한 듯, 호기롭게 던지던 망자는 검을 내리치던 자세 그대로 빳빳하게 굳어 있었다.요란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으로부터 굴러 떨어진 칼이 나룻배 위를 데굴데굴 구르더니 루칼리스의 발아래에 멈춰 섰다.칼의 동선을 쫓던 망자들의 눈동자가 이 급작스레 일어난 기괴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부산스레 움직이는데, 정작 루칼리스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만 들이켰다.“무슨 수를 쓴 거냐.”“하아암.”“네년의 정체는 뭐지?”이미 앞선 사례로 경각심이란 것이 생겼는지 망자들이 루칼리스를 부르는 호칭은 어느덧 ‘꼬마 계집’에서 ‘네년’으로 격상되어 있었다.물론 여신을 부르기 위한 호칭으로 턱없이 무례하기는 매한가지였다.루칼리스는 여전히 칼을 뽑아 들고 있는 망자들을 돌아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정확히는 그가 들고 있는 검을 향해서였다.“그건 좀 내려놓지 그래. 어차피 안 통할 텐데.”“헛소리 마라!”“어차피 거의 다 왔어. 너희는 이제 강에서 내리자마자 세 재판관들을 만나 땅땅 유죄판결을 받고서 아스포데로스의 들로 가게 될 거야. 나의 영지나 다름없는 곳이지.”생을 마감한 뒤 지하왕국에 온 망자들이 가는 곳은 주로 두 곳이다.아스포데로스의 들과 엘리시온.엘리시온은 생전에 특별한 공덕을 쌓은 이들만이 갈 수 있는 지복의 들로써 지하왕국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왕비, 페르세포네가 항시 머물고 있는 천국이었고 아스포데로스의 들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망령들이 가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본디 지하세계의 모든 영토는 다 하데스의 것이었지만, 페르세포네가 엘리시온을 요구하는 것을 본 루칼리스가 그 뒤 아스포데로스의 들을 달라 요청해 받아옴으로써 거의 독립적인 영토가 되었다.엘리시온은 지복의 들로 불리 우는 만큼 웬만한 공을 쌓은 영웅이 아니고서야 구경도 할 수 없는 성역이므로, 저 망령들 역시 아스포데로스의 들로 올 공산이 컸다.“어차피 곧 다시 만날 거, 미리 나한테 좀 잘 보이는 게 좋을 텐데.”그렇게 말해 보인 뒤 씩 웃는 루칼리스의 얼굴엔 짓궂음이 잔뜩 섞여 있다. 그러나 루칼리스의 힘에 의해 굳어 버린 망자들이 대답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뒤에서 지켜보던 카론은 절레절레 고개를 젓더니 다시 노를 저었고, 곧 나룻배 위에는 침묵만이 안개처럼 떠돌았다.고요함 속에서도 묵묵히 앞을 향해 전진하던 나룻배는 어느 순간 크게 한 번 출렁이더니, 무언가에 부딪힌 듯 멈춰 섰다.망령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기슭에 가 닿았다. 루칼리스는 마침내 도착한 스틱스 강의 반대편에 활짝 웃으며 뛰어내렸다.서서히 짙은 안개가 걷히고, 일행의 눈에는 일제히 은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채가 들어왔다. 재판장이었다.루칼리스는 장대하게 솟은 은빛 기둥들을 뿌듯이 바라보다가 과장된 동작으로 팔을 벌려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한껏 격양된 연극조로 외치기 시작했다.“자, 모두들 지하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 환영회라도 열어볼까 했는데...음, 다들 바쁜가 보네.”그 말과 동시에 힘을 거둬들였기에 이제껏 그녀의 권능에 의해 전신이 굳어 있던 망자들은 비틀거리며 강기슭에 하나 둘 처박히기 시작했다.어억!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강기슭을 굴러 진흙 범벅이 된 망자들을 바라보며 루칼리스는 이게 지상에서 유행하는 신종 환영식인가를 고민했다.은근히 재밌어 보이네. 나도 한 번 해볼까? 그렇게 루칼리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진흙 범벅된 망자들을 툭툭 건드릴 찰나, 진흙에 절여진 망자들로부터 앓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사신…?”끝까지 제 정체를 여신이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망자들의 모습에 루칼리스는 앓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카론을 돌아보았다.나 이 정도면 충분히 힌트 준 것 같은데 이번 애들은 왜 이러니.카론이 뭐 어쨌겠는가. 고개를 으쓱 올리며 황급히 다음 망자들을 데려오겠다고 다시 노 저어 도망갈 수밖에.그렇게 다시 반대편으로 사라지는 카론의 배를 원망스레 노려보던 루칼리스는 꽂혀 들어오는 망자들의 시선에 큼큼 헛기침을 하다 고개를 들었다.“나는 죽음의 딸이자 아스포데로스의 들의 주인이며 부활의 여신이다.”여신그 말에 강기슭을 기어오르던 망자들 전원이 일제히 홀린 듯 루칼리스를 바라보았다.인간이라면 일생 동안 요정도 한 번 보기 힘든데 여신이라니. 비록 생을 마감한 뒤에 보게 되었기는 하지만 역시 인간에게 여신이란 여전히 신비스럽고 고결한…“이름이 루칼리스이긴 한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듯 루칼리스는 귀를 휘휘 후볐다.그래, 신비스럽고…“내가 요즘 타나토스에게 매일 지고 있거든.”그 정도 해먹었으면 좀 져 줘도 되지 않아? 아니면 내가 데려간 인간들이 너무 허약했을까?그렇게 홀로 묻고 대꾸하던 루칼리스는 갑자기 열이 뻗쳤는지 바닥에 퉤 하고 침을 뱉었다.고결한…“그래서 말인데,”여신인데.루칼리스가 삐딱한 자세로 고개를 들어올렸다. 어려도 여신이라고, 이목구비가 잘 잡힌 순진무구한 얼굴 위로 밤하늘 같이 새까만 머리칼이 굽이쳐 흘러내린다.그러나 그 입을 뚫고 나온 말은 결코 망자들이 평소 그토록 상상해 마지않던 여신의 모습이 아니다.“너희들 칼 좀 쓰니?”삥 이라도 뜯듯 건들거리며 묻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예사롭지가 않다.망자들은 삐딱하게 선 채 자신들을 이리저리 재고 따지는, 제 허리 반 토막에나 올 법한 어린 여신을 얼이 빠져 바라보았다.아름답고 고결한 여신의 이미지가 꼬꼬마 여신 루칼리스의 위로 와장창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1부 - 지하세계이번만큼은 타나토스와의 인간 체스에서 이길 수 있겠다며 득의양양하게 귀환했지만 결론적으로 루칼리스가 체스에서 이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가이아와 더불어 최초의 신 중 하나인 닉스에게서 태어난 타나토스는 죽음의 신으로, 하데스의 대표적인 권속이자 지하세계엔 없어선 안 될 신이었기에 그 일과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루칼리스가 하루 종일 여유로울 수 있던 건, 그녀가 아직 올림포스의 연회에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기도 했거니와 나이가 어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였다.마주칠 때마다 안색이 초췌해지는 타나토스에게 언제까지나 놀아 달라 종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결국 아침 일찍 궁전을 나서서 망자들을 데려왔던 루칼리스는 기껏 한 수고가 무색하게 그들을 아스포데로스의 들에 놔주어야 했다.“으, 심심해.”“신들의 계보를 공부하시는 건 어떨까요?”“싫어.”어린 외양에 맞지 않게 비탄에 잠긴 표정으로 궁전 계단에 앉아 있던 루칼리스는, 슬금슬금 다가와 둘둘 말린 양피지를 내밀며 은근슬쩍 제안하는 오이지스의 말을 대번에 거절했다.그녀는 타나토스와 마찬가지로 닉스의 자식이었는데, 아픔과 걱정, 불안의 여신으로서 하데스의 권속 중 하나였다.그러나 죽음에 꼭 필요한 타나토스와는 달리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기타 감정들은 필수 요건이 아닐 때가 많아 타나토스보단 비교적 한가한 여신이다.그녀는 항상 뛰어놀기만 하는 루칼리스에게 신들의 계보를 공부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루칼리스는 언제나 놀 궁리만 하고 있었다.그날도 그렇게 오이지스의 공부 권유를 단칼에 권유한 루칼리스는 계단에서 벌떡 일어났다.갑자기 자리를 뜨는 루칼리스의 모습에 오이지스가 또 어딜 가실 생각이냐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루칼리스는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한달음에 자리를 비웠다.아스포데로스의 들에 가 보았자 오이지스에게 또 붙들릴 것은 불에 보듯 뻔했고, 그곳을 제외하고서 루칼리스가 갈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은으로 된 기둥을 지나 궁전을 빠져나간 루칼리스는 스틱스 강의 고퀴토스 지류를 끼고 계속해서 달려 나갔다.얼마 안 가 재판장의 문을 지나고, 케로베로스를 지나쳐 루칼리스는 엘리시온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었다.그때까지만 해도 거침이 없던 루칼리스의 걸음은 엘리시온의 입구에서는 잠시 멈칫 섰다.굳게 닫힌 문 사이로는 찬란한 빛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복의 들이라 불리는 곳답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빛에서는 온갖 영롱한 기운이 가득하다.그러나 루칼리스는 그러한 빛들에도 현혹됨 없이 입구를 빤히 노려보았다.엘리시온. 명예로운 영웅들이 가는 지복의 들이자 지하세계의 왕비, 페르세포네가 들어가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곳.비록 어미라 하나 루칼리스는 갓난아기일 적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그녀를 본 일이 없었다.물론 루카리스는 여신인지라 그 어린 시절 잠깐 본 페르세포네의 얼굴도 선연히 떠올릴 수 있었다. 결 좋은 밤색 머리를 땋아 길게 늘어뜨리고, 그와 같이 긴 속눈썹을 차양 같이 드리운 처연한 얼굴.지하세계의 왕이 한눈에 반해 납치를 감행했을 정도로 햇살 같던 이라지만 루칼리스는 도저히 그러한 세간의 평가에 동의할 수 없었다.그녀가 기억하는 한 어미는 단 한 번도 웃음은커녕 엷은 미소조차 비치지 않던 여신이었기 때문이다.삭막한 얼굴과 북풍한설 얼음과도 같던 표정, 그 위를 거무죽죽하게 드리운 그림자는 스틱스 강을 뒤덮은 안개처럼 사시사철 그네의 얼굴을 떠날 줄을 몰랐다.이목구비는 분명 뚜렷하니 여신이란 위명답게 아름다웠고, 이따금 놀러 오는 헤르메스는 페르세포네의 미모를 칭찬했지만 루칼리스는 하루하루 눈에 띠게 말라죽어 가는 그녀가 차라리 시체 같다고 생각했다.루칼리스가 이제껏 페르세포네의 미소를 본 일은 1년 중 3계절을 보내기 위해 다시 지상에 올라갈 때뿐이었다.대다수의 시간을 지상에서 보내고, 그나마 지하에 오는 때에도 엘리시온에 처박혀 있으니 루칼리스가 어미를 본다는 것은 그저 요원한 일이 되었다. 물론 그것에는 페르세포네가 의도적으로 루칼리스를 피한다는 것도 한몫했지만.마음만 먹으면 루칼리스가 페르세포네를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루칼리스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어쩐지, 각오는 하고 있었으나 저를 보고 일그러질 어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렇게 꼴 보기 싫었으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루칼리스는 그렇게 지나치는 길목에서 항상 보게 되어 있는 엘리시온을 한바탕 노려보다가 평소와 같이 시선을 거두며 자리를 떴다.그리고 지하세계의 맨 밑바닥에 있는 암흑을 지배하는 지옥. 신들의 분노를 받은 죄인들만이 갇히는 타르타로스를 향해 걸으며 떠오른 의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그러고 보니 최근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에서 머무는 일수가 눈에 띠게 늘었다. 듣기로는 아도니스라는 미소년 때문이라는데 저리 엘리시온에 틀어박혀 있는걸 보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사건의 발단은 간단했다. 지상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아끼던 미소년 아도니스가여신의 애인인 아레스의 계략으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을 다해 지하세계에 온 아도니스를 보고 이번엔 페르세포네가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이다.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자신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고 페르세포네는 마음에 든 미소년을 아프로디테에게 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섰다.아끼는 인간을 내줄 것을 요구하는 미의 여신과, 처음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아내. 선택의 기로에 선 하데스는 결국 아도니스가 일 년의 반은 지상에서, 또 다른 반은 지하에서 보내라며 판결을 내렸다.지금은 아도니스가 지하에 머무는 시기였고, 따라서 페르세포네가 드물게 지하세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다.아하, 그런 것이었군.지하에 머무는 일수가 늘어난 어미에 대해 끙끙거리던 루칼리스는 의문점이 해소되자 밝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그리고 의문을 해소하는 사이, 루칼리스는 타르타로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암흑을 지배하는 저승답게 타르타로스는 그 입구부터가 다른 곳과는 달리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오로지 어둠과 적막만이 지배하는 공간은 그 흔한 귀곡성 하나 울리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오싹한 공포를 자아냈다. 몇 번을 와도 꺼림칙한 곳이다.그러나 루칼리스는 그런 꺼림칙함을 꾹 참고서 걸음을 내딛었다. 들어가자면 걸어가는 수밖에.지하세계의 영토 중 유일하게 루칼리스조차 그 끝을 알지 못하는 타르타로스는 그 거대한 크기와는 달리 수용하고 있는 죄인의 수가 적었다. 그도 그럴 것이, 타르타로스는 신의 분노를 받은 죄인들만을 수용하는 저승이기 때문이다.타르타로스의 거주민으로는 탄탈로스, 시시포스, 티티오스, 익시온, 다나이스, 헤카톤케이론 티탄 족들이 전부여서 루칼리스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다만 루칼리스가 실제로 본 것은 탄탈로스나 시시포스, 티티오스, 익시온 등이 전부였는데 그 이상 타르타로스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타나토스가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본성인지라 루칼리스는 언젠간 타르타로스의 안쪽까지 가고 말리라 바짝 벼르고 있었다.그러는 사이 타르타로스로 들어가던 루칼리스는 제일 먼저 탄탈로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감히 아들을 고깃국으로 끓여 신들을 시험한 그는 죽을 때까지 마실 수 없는 고통과 먹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형벌을 받고 있었다.그의 하반신은 물에 잠겨 있었고, 위로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은 채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지만 그가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 물이 증발해 버렸고, 과일을 따먹기 위해 손을 뻗으면 가지가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이로 올라가 버렸다.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모를까 바로 앞에서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취할 수 없으니 그에겐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여, 탄탈로스! 안녕하구나?”탄탈로스는 여전히 물을 향해 허우적거리고 과일을 향해 허우적거리며 끝내 채워지지 않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중이었다.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바짝 마른 해골 같은 형태로 안광만 홧홧한 그의 모습은 좋게 봐도 한때나마 한 나라를 호령했던 왕이라고는 봐주기 힘든 몰골이었다.그 모습을 바라보며 루칼리스는 혀를 찼다. 그러게 왜 신들을 시험해서는….그 드높은 자존심 몰라서 신들을 시험했나. 인간을 사랑할 때는 영생이라도 줄 것처럼 구는 이가 신이지만 한 번 돌아서면 그 벌이 괜히 천벌이 아닐 만큼 매서웠다. 저승에서 죽은 망령들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루칼리스는 탄탈로스와 같이 멍청한 이를 알지 못했다.“아직도 물 한 모금을 못 마셨어? 한 입 줄까?”저도 어차피 달려왔던 차라 보란 듯이 물을 떠 마신 루칼리스는 탄탈로스를 향해 물었다.그러자, 내내 절망 어린 신음만 내뱉던 탄탈로스가 그 퀭한 안광을 번득 빛내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절박한 모양새가 우스워 루칼리스는 깔깔 웃으며 손으로 뜬 물을 탄탈로스에게 뿌렸다.“그러면 신벌의 의미가 없잖아. 조금만 더 고생하라구! 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물을 고스란히 뒤집어 쓴 탄탈로스는 입가에 묻은 물기라도 훑기 위해 혀를 내밀었지만 그 움직임에 따라 그를 적셨던 물들은 흔적도 없이 고스란히 증발해 버렸다.지켜보던 루칼리스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신벌이 달리 신벌이 아니다. 설마 저런 방법으로 물을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나?그렇게 한참 동안 의미 없는 시도를 반복하던 탄탈로스는 적실 침마저 없었는지 앓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그의 움직임에 따라 가슴까지 찼던 물이 바닥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사막처럼 메마른 땅에 떨어지게 된 탄탈로스는 비쩍 곯은 몸으로 뼈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흐느끼는 건지, 한참 동안 마른 어깨를 들썩이며 미동도 없던 탄탈로스로부터 잠시 후 메마른 음성이 새어 나왔다.“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에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힘내!”말 그대로, 탄탈로스의 형벌은 아직 한참 남아 있었다. 신들은 감히 저를 시험하고 도전하려는 인간을 용서해 줄 정도로 자비롭지 않다. 루칼리스는 그 전지전능함을 갖춘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옹졸할 수 있는 족속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그렇게 탄탈로스의 버석하고 메마른 울부짖음을 뒤로한 루칼리스는 다시 끝없는 무저갱 속으로 걸음을 내딛었다.몇 걸음 떼기가 무섭게 뒤에서부터 들려오던 절규는 어둠에 삼켜져 버리고 만다. 그 정도로 짙은 어둠이었다.얼마나 걸었을까, 루칼리스는 드르르륵 바위의 마찰음을 들을 수 있었다. 부스스 모래알갱이가 떨어지는 소리 역시.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빨리 하자, 잠시 후 저 멀리서 거대한 바위를 낑낑대며 산 정상을 향해 밀어 올리는 인물이 보인다. 상체를 아예 벌거벗은 탓에 땀에 젖은 등 근육이 꿈틀거렸다. 자신이 온 것도 모른 채 사내는 땀을 비 오듯 쏟으며 바위를 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루칼리스는 개구 진 미소를 지으며 살금살금 사내의 뒤로 다가갔다. 아까 전 탄탈로스보다 멍청한 이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취소다. 루칼리스는 탄탈로스보다도 엄청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 멍청이를 또 한 사람 알고 있었다.그때 이 사내로 인해 지옥은 한바탕 뒤집어졌더랬다. 감히 제우스신을 기만하고, 신들을 농락하며, 죽음의 신마저 속여 또 한 번의 생을 얻어낸 사내.물론 그 때문에 타나토스는 한동안 징계를 받았지만 루칼리스는 내심 신들을 속여먹은 사내가 꽤나 대단하다고 생각했다.신들을 속여먹은 인간이라니, 어디 가당키나 한가.비록 신의 권위에 도전한 탓에 타르타로스에 갇혀 영원의 형벌을 받고 있긴 하지만 루칼리스는 사내가 마음에 들어 자주 놀러 오고는 했다.그렇게 실실 웃던 루칼리스는 반가운 마음에 사내를 불렀다.“시시포스!” 지하세계그러나 열심히 형벌을 받고 있던 이는 루칼리스의 방문이 그리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다. 하긴, 신들의 형벌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여신인 루칼리스가 달가울 리는 만무했다.분명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한 번 돌아보지도 않고 묵묵히 바위를 굴리는 시시포스의 모습은 이미 익숙했기에 루칼리스는 바위산을 오르며 그의 뒤로 다가갔다.풀 한 포기, 이끼 하나 보이지 않는 바위산은 거친 모래와 자갈만이 굴러다녀 매우 휑했다. 멀리서 볼 때에도 까마득하게 솟아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초입까지 올라와 보니 터무니없는 높이다.바위산은 흙도, 모래도, 바위도 모두 검은색 일색이었다. 산 전체가 끈적끈적한 죽음을 뒤집어 쓴 것처럼 거무튀튀했다.인간은 도저히 오를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높이건만, 심지어 시시포스는 제 스무 배는 족히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바윗덩이마저 굴리고 있다.처음에야 루칼리스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그였지만, 나중엔 정말로 바위를 미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의 전신이 후들거렸고 땀이 비 오듯 떨어져 바닥을 짙게 물들였다. 비정상적인 크기의 바위는 그 움직임에 따라 그럭저럭 밀려 올라가는 모양새였다.그러나 지켜보던 루칼리스는 알고 있었다. 그는 영원히 이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리지 못할 것이다.만약 시시포스가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본 이라면 백이면 백, 그렇게 말할 것이었다.잘게 돋아난 생물체의 비늘처럼 바위가 사방에 솟아난 바위산은 그 사이사이의 틈새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그것만으로도 벅찬데 경사가 심해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야 했고, 정상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살갗을 후려칠 듯 매서웠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로 눈도 뜨기 힘들 지경이었다.그런 상황에서 집채만 한 바위까지 굴리며 올라가라고? 이건 목숨을 건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다. 지구를 지고 있는 티탄 족조차 이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루칼리스는 생각했다.“계속 바위만 붙잡고 있는걸 보니 어제도 정상에 올리는 건 실패했나 봐?”정확히 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완만한 곡선이라곤 조금도 없이 뾰족한 바위산의 정상은 바위를 갖다 올리기도 전에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져 버릴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그 때문에 시시포스는 몇 백 번, 몇 천 번을 다시 바위에 매달려야 하지 않았던가.루칼리스는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시시포스의 옆에 딱 달라붙어 조잘조잘 떠들어 대었다.“그거 다 소용없을걸. 올려 봤자 굴러 떨어질 거야.”그러나 루칼리스의 조잘거림은 오래 가지 못했다. 자꾸만 몰아치는 모래 바람이 결국 입 안까지 들이닥친 탓이다.루칼리스가 모래를 뱉기 위해 에퉤퉤 거리는 사이, 시시포스는 기어이 바위를 정상까지 끌고 올라갔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는 예상대로 정상에 서기 무섭게 반대편 비탈을 타고 굴러 떨어졌다.구르는 소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적막 속, 육중한 바위가 돌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독 선명하다. 간간히 다른 바위를 치고 튕기는지 둔탁한 소음도 이어졌다. 마침내, 그 마찰음이 멎었을 때에 내내 루칼리스를 무시하고 있던 시시포스가 루칼리스를 홱 돌아보았다.머리카락이 푹 젖어 그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기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이로 두 안광이 시퍼렇게 빛을 냈다.“몇 번이나 말하는 거지만, 이곳은 여신님이 올만한 곳이 못 됩니다.”“몇 번이나 말하는 거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라니까?”“…그렇지 않으면 신벌의 의미가 없지요.”간신히 연 말문을 루칼리스가 제 말을 천연덕스럽게 따라 하는 모습에 시시포스는 한참 후에야 입매를 비틀어 올렸다. 그가 말하는 사이에도 턱을 타고 떨어져 내린 땀방울은 땅에 동그란 모양으로 스며들어 루칼리스는 시시포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의 발밑에 있는 흙이 젖어 드는 광경을 구경하였다.“참 한가하신 가 봅니다, 꼬마 여신님은. 노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본인의 의무는 이행하셔야 하지 않습니까?”“난 아직 어려서 안 해도 돼.”“그렇다면 돌아가서 수행이나 하십시오.”“여기가 우리 집인데.”번번이 이어지는 축객령에도 루칼리스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먼저 지쳐서 몸을 돌린 것은 시시포스였다. 잠시 제자리에 서 휴식을 취하던 그는 이대로 루칼리스와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대답 없이 반대편을 향해 내려가는 시시포스의 뒤를 루칼리스는 허둥지둥 쫓았다.“왜? 벌써 가게? 좀만 더 쉬어.”“…”“난 너랑 대화하는 게 재미있단 말이야.”그 말에, 내내 험한 산길을 막힘없이 내려가던 시시포스의 신형이 우뚝 멎었다. 물기 없이 거칠거칠한 바닥에, 산 정상에서부터 밀어닥치는 바람은 미끄러지기 딱 좋았음에도 그의 몸은 신기할 만치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여기에서부터 떨어져 내리면 시계태엽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온 바위에 찔려 썩 좋게 죽지는 못할 텐데 서 있는 시시포스의 얼굴엔 두려움 따윈 보이지 않는다.사실 이미 죽은 몸이라 또 죽을 일 따윈 없어 그런 것이겠지만.시시포스의 뒷모습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심상찮은 기류에도 루칼리스는 눈에 모래가 들어갔다며 난리법석이었다.눈물을 짜내며 모래를 배출하려다 뒤늦게 신력에 생각이 미쳐 간신히 모래를 제거하는데, 내내 루칼리스가 하는 양을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시시포스가 입을 열었다.“당신네 신들이란 족속은 언제나 그렇게 제멋대로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뭐 하나 거슬리면 참지를 못하고.”“어?”“인간을 아낀다는 것조차 제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일 뿐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온갖 말로 업적을 찬양하며 입 안의 혀처럼 굴어야 뒷배를 봐준답시고 무거운 엉덩이를 드는 게 당신네 치들이지.”어느새 시시포스의 어조는 반 존대에서 평어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조차 자각하지 못한 듯 거칠게 말을 쏟아 내었다. 손으로 눈을 비비던 루칼리스는 처음으로 기나긴 말을 쏟아 내는 시시포스를 멍청히 바라보았다.“그 전지전능한 힘과는 달리 어린아이 심보도 안 되는 졸렬한 그릇을 가진 당신들을 혐오한다. 왜, 내내 말이 없는 걸 보니 슬슬 이 건방지게 놀리는 혀에 화라도 치미십니까? 어디 그 잘난 신벌 또 한 번 내려 보시지. 이미 죽어 더 잃을 것도 없는 몸이다.”세차게 부는 바람에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내리는 땀은 어느새 반쯤 말라 있었다. 축 늘어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던 머리카락은 뒤로 날아가고, 루칼리스는 온전히 드러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사내답게 잘생긴 얼굴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외모에 대한 감상조차 할 수 없게 증오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여신이란 금 수저 물고 태어나 만인지상 지하세계의 폭군으로 군림하던 루칼리스는 이제껏 그 어떠한 인간에게조차 이런 직접적인 악의를 받아 본 일이 없었다. 사실 이쯤 되면 이 건방진 인간이?! 하면서 돼지로 만들어 버리는 게 보통의 반응이겠지만 이 경우는 신선하기까지 했다.루칼리스는 삐딱하게 서서 악의 어린 눈빛을 숨기지 않는 시시포스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처음 본 시시포스의 얼굴과 처음 들어본 길디긴 말에 화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보다는 궁금증이 앞섰다.결국 루칼리스는 활활 타오르는 그 눈에 대고 물었다.“넌 왜 그렇게 신을 싫어해?”“…그걸 지금 말이라고…!”“내가 경외스럽지 않아? 위대하지 않니? 어서 나를 숭배해 봐.”“구역질이 나는군. 내가 널 숭배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어린 여신.”“네 의사를 물은 게 아니야. 인간이 가축을 도살하는데 이유를 묻던가?”가축은 인간에게 사육 당하고, 인간은 신을 숭배한다. 그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다.해가 뜨고 지는 것에 이유가 없듯이, 운명이 작아지고 끊어지는 것에 이유가 없듯이. 세상이 굴러가는 당연한 이치였다.그제야 루칼리스는 어째서 시시포스가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깨달았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바위를 굴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신을 경외하지 않았다. 신의 형벌은 인간이 진심으로 제 죄를 뉘우치고 신을 떠받들 때에야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하지만 상태가 이래서야. 루칼리스는 혀를 쯧 찼다. 이래선 그는 평생 이 바위산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물론 그를 보는 것은 꽤 즐거운 일과였기에 루칼리스에게는 나쁠 것 없는 일이긴 했다.시시포스는 아무래도 루칼리스가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는 그러한 폭언을 듣고도 한참 동안 반응이 없는 루칼리스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다.루칼리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신선하긴 했지만 화가 나진 않았다. 애초에 신벌을 받는 이가 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고. 결국 시시포스는 다시 바위를 향해 내려가며 헛웃음 지었다.“나 참, 내가 어린애를 붙들고 뭐 하는 짓인지.”“나 어린애 아닌데. 여신인데.”날 모욕 하는 건 괜찮지만 감히 인간 취급 하는 건 참을 수 없다!그렇게 루칼리스가 눈을 부릅뜨고 호칭을 정정하자 시시포스는 잠시 앓는 신음을 내었다.그는 진심으로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내가 이런 어린애를 붙들고, 화풀이나 해대고…뭘 한 거지. 입매를 박차고 나오는 한숨이 짙어진다.시시포스는 화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제 뒤를 바짝 쫓아오는 여신을 돌아보았다. 산 초입까지 내려왔을 때엔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았는지 그의 어조는 다시 존칭으로 바뀐 후였다.“어쨌거나 볼일이 끝났다면 이만 돌아가시죠, 꼬마 여신님. 신들은 부모 자식이란 개념도 없는 겁니까? 하데스가 당신을 꽤나 아낀다고 들었는데.”“아빠는 내게 화를 안 내니까 괜찮아.”“신이라도 가족 개념은 있나 보군요.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어머니가 걱정할 겁니다.”“넌 왜 날 못 쫓아내서 안달이야? 그리고 엄마는 아도니스랑 노니까 괜찮아.”그 말에 저만치 굴러 떨어진 바위를 찾아 다가가던 시시포스가 멈칫했다. 그는 다시 바위를 끼고 한 바퀴 돌아 끙끙 굴리면서 지나가듯 물었다.“형제자매도 있었습니까?”“아니. 아도니스는 그냥 인간 미소년인데. 엄만 요새 걔한테 미쳐 살아.”대수롭지 않게 튀어나온 대답에 놀란 것은 도리어 시시포스 쪽이었다. 그는 바위를 굴리는 것도 잊은 채 벙하게 루칼리스를 돌아보았다.쫄래쫄래 따라오던 루칼리스는 시시포스가 이쪽을 돌아보자 대화할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들뜬 표정이다. 그러나 시시포스는 그런 루칼리스의 표정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잠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던 그가 물었다.“당신은…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뭐가?”“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친을 놔두고 다른 사람과 있다는 데에….”그는 루칼리스가 봐온 이래 최고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루칼리스는 시시포스의 제대로 된 반응에 기쁜 한편 그런 그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글쎄, 신이 마음에 드는 인간을 끼고 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 나는 망자들하고 자주 놀아서 잘은 모르겠지만.”“그런 문제가 아니라…”갑갑한 듯 입을 열던 시시포스는 결국 말문을 닫으며 손으로 거칠게 머리를 쓸었다.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손동작에 따라 이리저리 온갖 모양새로 헝클어졌다.입매를 일자로 앙다물며 이마를 바위에 박은 시시포스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어깨를 들썩였다.“하…친 동기 간에도 애를 배는 치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참견을…”“그건 또 왜?”“그쪽 종들이 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아니라는 겁니다.”루칼리스는 아까부터 저와 한 템포씩 착실히 엇나가는 말을 하는 시시포스를 갑갑하다는 듯 바라보았다.미간 사이가 좁아지더니 짙은 골이 패인다. 루칼리스는 볼을 부풀리며 대꾸했다.“그게 뭐 어때서? 친동기간에 교배하면 고질병이나 장애가 나는 인간과는 달리 신은 그렇지 않아. 우수한 이들끼리 결합해 새로운 신을 창조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야?”“고질병이고 장애이고를 떠나서, 같은 어머니 아래 자란 친동기 사이 간에 같은 잠자리를 갖는다는 그 윤리고 뭐고 없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너 참 이상하다.”“제 나라에서 친동기간의 혼인은 돌팔매질을 맞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여신이시여.”답답하다. 루칼리스는 더는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입을 다물어 버리는 시시포스의 굳은 입매를 보고는 그런 생각을 했다.답답하다는 건 인상을 잔뜩 쓴 채 굳어 있는 시시포스 역시 피차일반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갑갑함은 풀리지 않았다.시시포스가 신들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루칼리스 역시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당장 신들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근친교배는 흔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결합도 흔했다.제일 먼저, 혼돈의 씨앗 카오스에서부터 태어난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제 아들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혼인해 여러 자식들을 나았다. 그 중 친동기간인 레아와 크로노스가 결혼해 또 신들을 잉태했고, 현재의 최고신인 제우스와 헤라 역시 친동기간이었다.“당신과 같은 어린 여신이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엔 그리 좋은 광경이 아닙니다.”“난 내 자유가 마음에 들어.”루칼리스는 아까부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 시시포스가 거북했다.평소엔 그렇게 쫓아다니고 말을 붙여도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더니 오늘따라 말이 참 많다.퉁명스럽게 나온 루칼리스의 대꾸에 시시포스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루칼리스를 돌아보았다. 바위에 절반이 가려진 그의 얼굴은 언뜻 보이기에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얼굴을 덮고 있는 것은 태반이 감정이었다.생전 연민, 동정 따위의 시선을 받아 본 일이 없는 루칼리스는 그 표정이 의미하는 바를 몰라 꽤나 미묘한 표정이라고만 생각했다.“그건 당신이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겠죠. 아무도 당신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여신이니까요.”“인간의 감정을 내게 이해시키려 들지 마.”비록 그 표정은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루칼리스는 아까부터 시시포스가 짓는 그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내뱉는 말 또한 마찬가지였다.결국 확 감정이 상한 루칼리스는 시시포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정상 부근까지 올린 바위를 뻥 걷어 차 버렸다.그가 힘들여 굴려 올린 바위가 저 아래까지 데구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시시포스는 처음으로 그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다.그는 다만 말없이 바위를 다시 굴리기 위해 산비탈을 걸어 내려갔고, 루칼리스는 다시 그 뒤를 털레털레 따라야 했다. 지하세계지하세계는 하데스가 다스리는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하세계에 있는 신이 그 뿐인 것은 아니다.지하 세계에는 생각보다 많은 신이 있었다. 카오스에서 태어난 최초의 신 중 하나인 암흑의 신 에레보스를 비롯해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수면의 신 힙노스, 꿈의 신 오네이로스, 불평의 신 모모스, 아픔의 여신 오이지스, 불화의 여신 에리스, 뱃사공인 카론 등.그들은 본디 스틱스 강가에 있는 황금궁전에 거주하며 제각기의 유흥을 보냈는데, 루칼리스가 탄생한 뒤로는 의도치 않게 그녀의 스승 겸 보모 노릇을 하게 되었다.비록 다음 세대 신에게 자리를 넘겨주었거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신인지라 인간계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들은 루칼리스의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무엇보다 기나긴 영생이 따분하고 무료했던 그들에게 있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루칼리스는 즐거운 삶의 활력이 되고 있었다.금과 은으로 된 휘황찬란한 궁전. 넓은 복도를 지나 탁 트인 정원 위엔 십수 명은 수용할 수 있을 법한 거대한 탁자가 놓여 있다.통짜 대리석을 조각해 만든 탁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순백색이었는데, 등불이 일렁일 때마다 눈부신 빛을 반사하며 제 위용을 과시했다.그 주위를 빙 둘러앉은 신들은 웬만한 하급 신들이 보았다면 놀라 자지러질 정도의 고위 신들이다.원래 신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런 성향은 고위 신일수록 더하다. 이들도 본디라면 제각기 궁에서 개인 활동을 하였겠지만 루칼리스가 태어난 이래 항시 같은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는 했다.들고 있던 잔이 비자, 내내 대기 하고 있던 갈대의 요정들이 넥타르를 채웠다.모두가 무료한 동작으로 향을 음미하던 중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오이지스였다. 그녀는 연신 걱정된 기색을 지우지 못하며 궁의 입구 쪽을 힐끔 대었다.“오늘따라 루칼리스 님이 좀 늦네요. 저번에 타르타로스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닐까요?”고개를 돌리는 동작에 따라 그녀의 긴 남색 머리가 출렁인다. 걱정이 없다 못해 태평해 보이기까지 하는 다른 신들과는 달리 오이지스는 한 시간 전부터 안절부절못한 기색이었다.초조하게 흘러나온 오이지스의 말에, 이제껏 느긋한 표정으로 넥타르를 마시던 신들의 안색이 달라졌다.방금 채워진 잔을 또 한 입에 털어 넣은 힙노스가 미간을 찡그렸다. 그러나 수면의 신답게 항상 반쯤 감겨 있는 그의 눈 때문에 그리 험악한 인상을 주진 못했다.“루칼리스가 또 타르타로스에 갔단 말이야?나른한 목소리엔 살짝 질책마저 묻어난다. 그제야 내내 손아귀 안에 황금사과를 두고 굴리던 에리스도 고개를 들었다.“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루칼리스 님은 너무 자기 멋 대로인 게 탈이라니까. 오이지스 네가 잘 좀 따라다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나도 말렸어! 하지만 루칼리스 님이 어디 우리말을 들으시는 분이니?”억울하다는 듯 언성을 높이는 오이지스의 말에 대답은 없지만 모두들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만약 루칼리스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지하세계를 뛰어다니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그 나이대의 어린아이들이 그렇듯 루칼리스는 천방지축 제멋대로였고, 그것은 하데스의 애정과 페르세포네의 방치가 이어지며 더욱 심화되었다.오이지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탁자 주위에 빙 앉아 있던 신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쏠렸다. 시선의 끝엔 탁장의 정중앙에 있는 암흑의 신 에레보스가 있다.밤처럼 검은 머리에 검은 수염을 가지고 있는 그는 최초의 신 중 하나로써 하데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위 신이다.특히 그는 자신의 속성답게 어두운 머리와 수염을 가지고 있어 루칼리스가 눈치를 보는 몇 안 되는 신 중 하나였다. 그의 권위도 권위였지만, 그 생김새가 하데스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물론 거대한 덩치라던가 정광이 쏟아져 나오는 눈, 고위 신답게 압도적인 기운이 쏟아져 나오는 그의 모습은 루칼리스 앞에만 서면 과할 정도로 풀어지는 하데스와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었다.하지만 적어도 루칼리스가 그의 앞에서 약해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다른 신들은 과묵한 에레보스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다. 개중 가장 매달리는 것은 항상 루칼리스 곁을 따르는 오이지스였다.“에레보스 님, 에레보스 님이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루칼리스 님이 에레보스 님의 말은 잘 들으시잖아요. 저희 말은 귓등으로도 듣질 않아 항상 죽어 난다구요. 타나토스나 카론이나, 루칼리스 님껜 너무 약해서 큰일이에요.”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루칼리스가 에레보스 앞에서면 약해지듯, 에레보스 역시 루칼리스에겐 한없이 약해진다는 점이었다.에레보스는 루칼리스를 손녀 대하듯 귀여워했고, 또 그 과한 성정마저 안쓰럽게 보았다. 사실 그것은 여기 있는 신들 모두가 그러했기에 할 말은 없었지만.결국 다른 신들의 대화 내내 묵묵히 넥타르를 들이키던 에레보스가 잔을 내려놓았다. 길게 자란 수염 사이로 짙고 울림 있는 음성이 세어 나온다.“그 나이 대 애들은 다 그렇게 커 가는 거지.”“어떤 신들도 루칼리스 님처럼 해골바가지를 깨고, 케르베로스의 꼬리를 묶으면서 놀진 않는다고요!”“헤르메스 놈은 그 나이 때 아폴론의 소들을 훔쳤다.”에레보스의 비유에 오이지스는 씩씩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차마 할 말을 찾지 못하면서도 분한지 연신 에레보스 쪽을 흘겨본다.에레보스 님도 차암, 비교하실 데에 비교를 하셔야지.루칼리스도 그렇지만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유년기는 여타 신들과는 매우 달랐다.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복형 아폴론의 소떼를 훔치고, 그로도 모자라 제우스에게 재롱을 부려 날개 달린 신발과 지팡이를 얻었다는 그의 일화는 유명했다.날 때부터 참 난 놈이었다.“에이, 아무리 그래도 헤르메스 쪽에 비유하면 섭하죠. 루칼리스가 여기서 더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그래도 헤르메스는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내내 듣고만 있던 꿈의 신 오네이로스가 손사래를 쳤다. 오이지스는 재빨리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헤르메스 님은 너무했죠!그리고 그렇게 맞장구를 치던 오이지스는 곧, 뒤에서부터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쩡 굳어 버렸다.“어라, 내 얘기 중?”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삐죽 튀어나온다. 그 장난기 있는 성격을 대변하듯 짧은 곱슬머리가 양치기 모자 사이로 흘러내렸다. 오이지스는 갑자기 뒤에서부터 튀어나온 헤르메스의 모습에 당황을 숨기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헤, 헤, 헤르메스 님?! 지금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에요?”물론 헤르메스가 지하세계를 오간 거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이렇듯 본인의 이야기에 타이밍 맞춰 나타날 줄은 몰랐던지라 오이지스의 당혹감은 더욱 커졌다.그러나 헤르메스는 오이지스의 당황은 아는지 모르는지 느긋하게 튀어나와 허공으로 붕 치솟는다.졸지에 탁자에 앉은 신들의 시선이 허공으로 떠오른 헤르메스에게 향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고 느꼈는지 잠시 그 시선을 즐기던 헤르메스는 낄낄 웃으며 들고 있던 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어쩐 일이긴, 지난 번 루칼리스가 부탁한 황금의자를 주려고 왔지.”“황금의자요?”“응, 에레보스 님과 당신네들이 사용할 황금의자를 만들고 싶다고 헤파이스토스 님께 의뢰하던데?”“호오,”전혀 예상치 못한 용건이었는지 내내 졸린 눈을 하고 있던 힙노스조차 눈을 동그랗게 떴다. 헤르메스는 무엇이든 들어가는 마법 주머니에서 보기에도 눈이 부시는 황금의자를 턱턱 내놓았다.과연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라 할 만큼 의자는 아름다웠다. 순금으로만 이루어진 황금의자는 그 자체의 곡선과 조각만으로도 아름다웠지만 개중 등받이에 루비나 다이아몬드 등이 큼지막하게 박혀 더욱 빛을 냈다. 인간들이 제사 때 바치는 공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물이었다.“루칼리스가 의뢰를 할 때 직접 모든 재료들을 공수했으니까 더 화려할거야. 헤파이스토스 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작이라고 하시더군. 공방에 들른 여신들이 한 번씩 눈독을 들여 지키느라 혼났대.”그제야 신들은 대강의 전후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지하세계는 온갖 광물들이 가득한 지하자원의 천국이다.그 모든 것은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의 소유였지만 그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신이 아니었고, 그것들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루칼리스라 할 수 있었다.이미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루칼리스는 하데스를 졸라 지하 광물들의 소유권을 실제로 얻어내었고, 장신구를 좋아하는 여신들이 보석들을 가져갈 때엔 루칼리스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그런 루칼리스가 헤파이스토스와 안면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는 온갖 것들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여신들의 장신구들을 만드는 일에 능했고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공수하기 위해 지하세계에 오는 일이 잦았다.자주 마주치게 된 두 신이 친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고신인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지만 그 흉물스런 외모 탓에 지상으로 던져져 다리를 절게 된 헤파이스토스는 신답지 않게 미관상 좋지 않은 외양을 가졌지만 루칼리스는 성격 좋고 털털한 그를 좋아하고 매우 잘 따랐다.특히 헤파이스토스는 그 뛰어난 손재주로 루칼리스에게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루칼리스는 항상 헤파이스토스에게만은 광물을 내주길 아끼지 않았다.뭐 그렇게 쌓아진 친분으로, 루칼리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광물을 그냥 내주게 되었고 헤파이스토스는 언제나 루칼리스의 의뢰만은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해주게 되었다는 말이다.그리고 그 결과물은 항시 지하세계에서 온갖 보석들을 봐 온 신들마저 흔들리게 할 정도로 엄청났다.흥분한 표정으로 황금의자에 한 번씩 앉아 보던 신들은, 곧 헤르메스가 허공에서 히죽히죽 웃으며 그런 저들을 구경하고 있었음을 깨닫고는 무안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했다.“뭐, 황금의자는 충분히 마음에 든 것 같고. 루칼리스는 어디 있어?”“흠흠, 루칼리스 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아마도 혼날까 봐 도망가신 게 아닐까 싶어요.”“왜, 또 무슨 사고를 쳤어? 저번처럼 망자들을 빼돌리기라도 했데? 아니면 스틱스 강의 요정들을 골탕 먹였나?”헤르메스의 마지막 말에, 신들의 시중을 들던 갈대의 요정들이 흠칫 몸을 떨었다. 그네들은 스틱스 강기슭에 자생하는 갈대밭의 요정들로 지하세계 신들의 시중을 들곤 했는데, 며칠 전 루칼리스가 벌인 무지막지한 장난질의 피해자였다.루칼리스가 불장난이 해보고 싶다며 갈대밭을 홀라당 태워 먹을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이 지하세계에서 루칼리스의 장난을 당해 보지 않은 신은 하데스와 에레보스가 유일했다. 심지어 헤르메스조차 루칼리스에 의해 스틱스 강 한가운데에 처박혀 본 전력이 있을 정도였다.그렇게 입을 놀리며 제풀에 낄낄대는 헤르메스의 모습에, 오이지스는 못마땅하다는 듯 붉어진 얼굴로 씩씩거렸다.“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장난 수준이 아니에요. 루칼리스 님이 최근에 또 타르타로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아, 저번엔 나와도 한 번 같이 갔었지.”“헤르메스 님!!”심각한 표정의 오이지스와는 달리 실실 웃으며 가볍게 말을 하는 헤르메스의 모습에 오이지스가 빽 소리를 질렀다. 그 하이 톤의 비명에 헤르메스는 예민한 귀를 꾹 누르고는 인상을 썼다.전령의 신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말을 옮기는 소문의 신, 또는 거짓말의 신이라는 직책을 겸비하고 있는 그는 몹시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었다.“아아, 시끄러. 왜 그렇게 과민반응 하고 그래?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 나이 대라면 호기심을 가질 만하잖아? 카오스의 씨앗에서 파생된 암흑을 가두는 저승이라니.”“그야 위험하니까 그렇죠!”오이지스는 두 손으로 귀를 막는 헤르메스의 모습에 한 풀 꺾인 기색으로 소리를 줄였지만 여전히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덧붙였다.“타르타로스의 가장 밑바닥에는 제우스님도 감당하기 힘든 죄수들이 있는걸요.”“아아, 걔네?”헤르메스는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타르타로스는 최초의 신들과 함께 카오스로부터 파생된 저승인 만큼 그 끝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한 번 가둬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최악의 감옥인 만큼 그야말로 중죄인들만을 가두는 곳이었다.그 중 가장 안쪽에는 최고신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들고 일어났던 반란 족들이 기회를 노리며 가둬져 있었다.개중에는 현재 최초의 신 중 하나인 가이아 여신의 자식들도 있어서, 루칼리스와 같이 갓 태어난 어린 여신쯤은 사지가 찢겨 죽어 나갈 수도 있었다.그 위험한 존재들을 이제야 떠올렸냐는 듯 참으로 살벌하게 바라봐 오는 오이지스 탓에 헤르메스는 슬쩍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루칼리스가 그렇게 바보도 아니고. 항상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그렇다고 안 들어갈 생각은 아니실 것 아니겠어요? 루칼리스 님인데.”“그건 그렇지.”“헤르메스!”정말로 화가 났는지 이번엔 존칭마저 생략하고 부르는 오이지스의 모습에 헤르메스는 이크, 불에 댄 듯 자리를 떴다.그러면서도 황금의자를 가리키는 건 잊지 않았다.“어차피 루칼리스야 아스포데로스의 들에 있겠지. 난 이만 가 볼게! 그리고, 루칼리스가 기껏 뇌물까지 준비했는데 너무 쪼아대지는 마. 성의가 있잖아. 에레보스 님, 전 이만 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제우스에게 안부 전해라.에레보스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헤르메스는 하늘을 날며 저 멀리로 사라져 버렸다. 그 뒷모습에 대고 “우리 루칼리스 님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면 가만 안 둘 거예요!”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오이지스는 곧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그렇게 한바탕 요란했던 헤르메스의 방문이 지나고.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다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의자에게로 쏠렸다.의자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과연 보는 여신마다 한 번씩 탐을 냈다는 헤파이스토스의 역작다웠다.그러나 좌중에 앉아 있던 신들은 모두가 그 의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쉽사리 앉아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엔 아까 전 헤르메스가 외친 말의 여파가 컸다.뇌물.헤르메스는 황금의자를 루칼리스가 준비한 뇌물이라고 했다. 그랬다면 루칼리스의 의도는 뻔했다.저 황금의자를 받고, 저를 내버려두라는 것이다.그 나이 대에 잔소리만큼 성가신 것은 없다. 물론, 최근 타르타로스에 갔다 온 것에 대해 혼날 것도 계산하고 준 것이겠지만.황금의자가 아름답긴 했지만 신들은 루칼리스를 한바탕 크게 혼낼 생각이었다. 단순한 장난을 떠나서 타르타로스는 정말로 위험한 곳이었다. 훈계 이전에 루칼리스가 다치거나 소멸할 수도 있었단 생각에 아찔했고, 또 이번만큼은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그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제 자리를 고수하는데, 누군가 일어나 황금의자에 몸을 뉘였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라며 득의양양 미소를 짓던 오이지스는 깜짝 놀랐다. 그만큼 황금의자에 가장 먼저 앉은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다.“에, 에레보스 님?”그 거대한 덩치를 소리 없이 일으킨 에레보스는 황금의자에 몸을 뉘이더니 감상 한 마디를 툭 던졌다.“편하군.”최초의 신이자 최고위 어른이라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허둥대는데 에레보스는 도리어 그런 신들을 여상하게 돌아보았다.“뭣들하고 있는 거지? 선물인데 한번 앉아 보지 않고.”“하지만 아까 전에 헤르메스 님께서 루칼리스 님의 뇌물이라고…”머뭇거리며 대답을 한 것은 오이지스였다. 다른 신들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이지스의 시선에 모모스가 눈치껏 거들었다.“에레보스 님, 이번만큼은 주의를 단단히 줘야 해요. 루칼리스가 어디 보통 고집불통입니까? 주의를 줘도 한 귀로 흘려듣고, 뭣보다 도망치는 솜씨는 아주 일품이에요. 한 눈 파는 사이에 저만큼 가 있으니 원. 이러다간 정말로 크게 일 날 겁니다.”“맞아요, 이번만큼은 마음 약해지지 말고 혼을 내야 해요.”“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야죠.”“매번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요.”말을 하다 보니 하나 둘 의견이 모아졌다. 어느덧 소란스러워진 의견에 에레보스는 좌중을 둘러보았다.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모든 신이 결사 어린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슬쩍 보니 옆에서 넥타르를 따르던 갈대의 요정조차 손을 꾹 쥐고 있어 픽 웃음이 새어 나온다. 그제야 에레보스의 시선을 눈치 챘는지 갈대의 요정은 귀를 붉히며 조용히 손을 내렸다.그 광경을 하나 둘 바라보던 에레보스는 황금의자에 더욱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입 꼬리를 올렸다.“그래.그런데 난 루칼리스를 혼내지 않겠다고 한 기억이 없는데 말이다.”“…네?”하지만, 황금의자에 앉으셨잖아요…오이지스가 작게 덧붙였다. 그 중얼거림에 에레보스는 그로서는 드물게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뇌물을 받아 줄지 말지는 당사자의 마음이지. 성의는 받겠지만 루칼리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꾸지람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그 말에, 오이지스는 아! 하며 깨달음의 신음을 흘렸다. 다른 신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이게 연륜의 차이라는 건가.그 말을 마지막으로 에레보스는 등받이에 고개를 기대며 눈을 지그시 감았고, 하나 둘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신들은 언제 눈치를 봤냐는 듯 새로운 황금의자에 달려들어 하나 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그 모습에 처음엔 아앗, 배신자들! 이라며 날뛰던 오이지스였지만 그녀도 잠시 후엔 황금의자의 유혹을 무시하지 못하고 편안함을 만끽해야 했다.오이지스의 등쌀에 잠에서 깬 힙노스가 어이없다는 듯 시선을 주자 뒤늦게 제 행동을 자각했는지 오이지스가 볼을 붉히며 중얼거렸다.“역시 헤파이스토스 님이 솜씨가 좋네요. 편안해요.”“…”신들은 이 황금의자에 매우 만족해했다. 비록 루칼리스가 오면 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만.기껏 수백의 황금과 아끼던 보석들로 황금의자를 만들어 바친 루칼리스가 통탄할 일이었다.